

유통가, 물폭탄에 잠겨버린 피서철 대목

지난 주말 롯데백 광주점 3.7%·롯데아울렛 11.9% 매출 ↓
대형마트는 긴 장마에 의류관리기 등 생활용품 매출 증가세
이마트 광산·봉선점, 롯데마트 금·토 여름철 30분 연장영업

지난 주말 남부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주요 매장 방문객과 매출이 전주보다 줄었다.
10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과 월드컵점에 따르면 이들 매장의 지난 7~9일(금·토·일) 평균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11.9% 감소했다.
이는 더위를 피해 7~8월 영화관과 식당, 키즈파크를 갖춘 복합쇼핑몰로 고객이 몰리는 '몰강스'(쇼핑몰+바캉스) 양상을 거스르는 수치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출도 1주 전보다 3.7% 떨어졌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주말 사이 강수량이 수백 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몰강스' 보다는 안전하게 집에 머무르려는 고객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휴가철을 맞아 신선식품과 각종 식료품, 장마 대비 용품을 사려는 수요로 방문객 수와 매출이 소폭 올랐다.
광주지역 4개 이마트가 의무휴업일인 9

일을 제외하고 7~8일 고객 수를 집계한 결과 전주 같은 요일보다 1.8% 증가했다.
이들 매장은 이 기간 동안 신선과일과 축산물, 냉동식품 등이 매출을 끌어 올렸다.
수입육(호주산) 매출은 1주 전보다 140% 올랐고, 삼겹살(88%), 간편채소샐러드(150%), 포도·복숭아(각 50%)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냉동식품 매출이 22% 오르고, 주류 14%, 과자 7%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상 밖에 길어진 장마를 맞아 의류관리기 매출은 150% 가량 뛰었고, 건조기는 90% 증가했다.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 매출 역시 주말 폭우에도 3.5% 증가했다.
지역 대형마트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영업 시간을 늘려 야간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롯데마트 수원점과 월드컵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금요일·토요일만 30분 연장한 밤 11시30분까지 영업한다. 예년의 경우 이 매장은 하절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해왔다.
이마트는 광주 4개 매장 가운데 광산점과 봉선점 2곳만 오는 16일까지 30분 연장 영업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캠핑용품과 수영복 등 여름용품에 대한 마지막 할인 행사인 '썸머 클리어런스'를 진행한다. 텐트와 그늘막, 침낭, 성인·어린이용 수영복, 여름 의류 등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6.38 (+34.71)	↑ 금리(국고채 3년) 0.830 (+0.020)
↑ 코스닥 862.76 (+5.13)	↑ 환율(USD) 1185.60 (+0.9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나선다

광주 국제청, 법인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광주지방국제청(청장 박석현)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방국제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12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세무조사도 연기해 연말까지 세무조

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는 제외한다.

국제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부당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조지급을 추진한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광주·전남 중기 품질 검정·보증비용 지원

기업 400곳 최대 500만원

한전KPS가 광주·전남 중소기업 260여 곳을 포함한 400여 개 업체의 품질 검정·보증비용을 지원한다.

10일 한전KPS는 지역산업 육성 및 품질보증 지원을 위한 'S-슈어'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표준화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대상 기업은 기술 표준 유지를 위한 계획 및 공구기의 검·교정 비용을 지원받는다. 모든 제조공정의 기초가 되는 계획장비 교정은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한전KPS는 계획장비 교정 260여 개 업체, 품질교육지원 144개 업체를 선발해 검·교정비 등 총 15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또 이 사업을 전국 중소기업 기술표준 및 품질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미니 핸드백 가볍게 들어요"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4층 '쿠론' 매장에서 이들이 보조기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바닥 크기 핸드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업체 긴급자금 1000억원 지원

업체당 3억원...금리 감면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0일 집중호우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피해업체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3억원까지이다. 최

대 1.0%포인트의 특별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과 만기 연장 규모는 각 500억원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광주은행은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해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들은 직접 피해 현장에 나가 현장 점검을 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종합상담반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업체에 긴급경영안정 자금

1000억원을 특별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자금 1000억원을 편성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 1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5억원 등을 출연했다.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다 집중호우까지 겹쳐 지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핀테크 서비스·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논문 9월 20일 해커톤 9월 6일까지 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8회 핀테크 해커톤 및 아이디어·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해커톤(9월6일까지 접수) ▲아이디어·논문(9월20일까지) 등이다. 주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신규 핀테크 서비스 개발'과 '디파이 관련 신규 이내로 팀을 구성해 부문별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은 핀테크와 디파이(블록체인 금융 시스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이 대회를 열어 왔으며, 올해는 아이디어·논문 공모전이 추가됐다.

진흥원 측은 해커톤 부문의 경우 오는 9월18~20일 사흘 동안 서비스 시연 행사를 통해 입상팀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이디어·논문은 발표와 서류 심사를 거쳐 입상팀을 가려낸다.

입상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협력기관장상 등 상장 14점이 수여된다. 총 상금 2100만 원이다.

부상으로 2600만 원 상당 네이버비즈니스플러스 플랫폼 크레딧과 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 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단공 광주,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 19일까지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오는 19일까지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원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0월 31일 1차·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며, 광주에

서는 광주공고 등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일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